

[논문]

신체적 느낌과 인지는 감정을 구성하기 위해 어떻게 결합되는가?

—프린츠(J. Prinz)의 이론을 중심으로—

신 인 자*

[주제분류] 심리철학, 철학적 심리학

[주제어] 감정, 신체적 느낌, 인지, 제시 프린츠, 체현된 평가, 윌리엄 제임스

[논문초록] 신체적 느낌과 인지는 감정을 구성하기 위해 어떻게 결합되는가? 본 논문의 일차적 목적은 이 문제가 프린츠의 이론 내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프린츠에게 있어 명제적 판단으로서의 인지는 감정에 있어 구성적 요소로도, 직접적인 원인으로서도 작용하지 않는다. 감정은 외부 대상의 지각에 의해 야기된 신체적 변화들에 대한 느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제안한 체현된 평가 개념은 신체적 느낌으로서의 감정이 명제적 판단과 비슷한 인지적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명제적 판단으로서의 인지는 외부 대상에 대한 지각과 연합되는 것을 그 조건으로 신체적 느낌 즉 감정을 일으킨다. 두 번째로 이 논문에서는 프린츠의 체현된 평가 이론과 제임스의 이론 간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정립하고자 한다. 제임스의 이론 안에서도 프린츠 자신이 감정이 체현된 평가임을 보여주기 위해 제시한 조건들 모두가 발견된다. 그러나 제임스가 신체적 느낌으로서의 감정이 의미를 담지하고 있는 상태임을 주장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프린츠의 독창성을 제임스가 그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미처 간파하지 못한 점, 즉 감정이 체현된 평가임을 밝히고, 이를 심적 표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교화 시켰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 서울대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석사과정

I. 도입

감정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크게 인지주의적 입장과 비인지주의적 입장이 있다.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은 감정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라는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인지주의자들은 감정 주체가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내리는 판단(judgment)을 감정의 구성요소로 보는 반면, 비인지주의자들은 감정적 상태에서 발견되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느낌(feeling)을 그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감정 경험을 반성해 볼 때,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요소로서의 판단과 신체적 느낌 중 어느 한 가지만을 취할 수 없으며,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설명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감정에 대한 이론은 ‘신체적 느낌과 인지(cognition)가 감정을 구성하기 위해 어떻게 결합되는가?’라는 문제를 적절히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프린츠의 감정이론에 초점을 맞추어 그 문제가 그의 이론 내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주제는 III장에서 다루어지는데, 이를 위해 먼저 II장에서 프린츠의 감정 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프린츠의 감정이론은 기본적으로 제임스(W. James)의 것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임스의 감정이론을 소개함으로써 프린츠 이론의 기본적인 골격에 대한 이해를 대신할 것이다. 그 이후 프린츠 감정이론의 핵심 개념인 체현된 평가(embodied appraisal)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감정이 ‘평가(appraisal)’라는 주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체현되었다(embodied)’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세 번째로 이렇게 밝혀진 체현된 평가 개념이 인지주의자들이 말하는 판단(judgment)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봄으로써 체현된 평가 개념의 의미를 더욱 명료히 다듬어볼 것이다. II장의 논의를 바

탕으로 III장에서 ‘신체적 느낌과 인지가 감정을 구성하기 위해 어떻게 결합되는가?’라는 주제에 접근할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차원으로 나뉘어 진행될 것인데, 이러한 구분은 인지에 대한 두 가지 해석에 바탕을 둔다. 먼저 인지를 명제적 판단에만 한정시키지 않았을 때 나올 수 있는 답변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에 제시된 설명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프린츠 이론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두 번째로 인지를 인지주의자들이 말하는 판단으로 보았을 때의 답변을 제시할 것이다. 이 두 번째 답변에 대한 모색은 제임스 및 프린츠의 감정 이론에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한 프린츠의 해결을 살펴봄으로써 이루어진다.

위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신체적 느낌과 인지가 감정을 구성하기 위해 어떻게 결합되는가?’의 문제를 규명함과 동시에 프린츠의 체현된 평가 이론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마지막으로 프린츠의 감정 이론과 제임스의 이론과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감정이 체현된 평가임을 가능케 하는 요소들을 정리하고, 이들이 제임스의 이론 내에서 발견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II. 프린츠의 감정 이론

1.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각으로서의 감정

프린츠는 감정을 바라보는 기본적 입장에 있어 제임스와 랭(C. Lange)의 이론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¹⁾ 따라서 프린츠의 감정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제임스와 랭이 주장한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제임스와 랭은 비슷한 시

1) Jesse Prinz, “Embodied Emotions”, In R. C. Solomon (ed.), *Thinking about Feeling*, Oxford University Press, (2004a).

기에 각기 독립적으로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켰지만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같기 때문에²⁾ 이 절에서는 제임스의 감정 이론에 한정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 느낌과 그 감정에 동반하는 신체적 변화들, 이를테면 슬픔과 슬픔을 느낄 때 흘리는 눈물의 인과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아마도 전자가 원인이 되어 후자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를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슬프기 때문에 울고, 기쁘기 때문에 웃으며, 화가 나기 때문에 눈을 부릅뜬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제임스의 감정 이론의 핵심은 바로 이와 같은 상식을 전복시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심리학의 원리』의 감정에 대한 장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감정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각은 어떤 사실을 정신적으로 지각하면 감정이라 불리는 정신적 감정이 일어나고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신체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내 이론에 따르면 이와 반대로 흥분을 일으키게 하는 사실을 지각하면 신체적 변화가 따르고, 그 신체 변화에 대한 느낌이 바로 감정이다.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행운을 놓쳤을 때 섭섭해서 울며, 꿈을 만났을 때 무서워 도망가며, 경쟁자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분노하게 되어 때린다. 이곳에서 옹호하는 가설은 그러한 순서는 잘못된 것이며, 한 정신상태[감정 또는 정서]가 다른 정신 상태[지각]에 의해 직접 유도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표현이 이 두 정신 상태 사이에 삽입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위의 예의 경우에, 우리가 울기 때문에 슬픔을 느끼고, 때렸기 때문에 화가 나고, 몸을 떨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것이지, 슬프거나 화나거나 두렵기 때문에 울거나 대항하거나 몸을 떠는 것이 아니다.³⁾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제임스의 감정 이론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먼저 제임스는 신체적 변화가 감정적 느낌에 뒤

2) Prinz (2004a), p. 44; William James,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1890/1950), Vol. 2, p. 449.

3) James (1890/1950), Vol. 2, pp. 449-50.

따른다는 상식과는 반대로, 신체적 변화가 감정에 선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제임스에게 있어 감정은 신체적 변화에 뒤따르는데, 이는 감정이 바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각이기 때문이다. 즉 그에 따르면, 우리는 우는 신체적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슬픔이라는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며, 웃기 때문에 기쁘고, 눈을 부릅뜨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감정에 대한 제임스의 전체적 그림을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감정과 관련된 특정 상황을 지각하게 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신체적 변화가 뒤따르는데, 이 신체적 반응에 대한 지각이 바로 우리가 감정이라 부르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뱀과 마주쳤을 경우를 가정해 보자. 그의 시야에 뱀이 포착된 즉시 그는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르는 등의 신체적 변화들을 나타낼 것이며, 바로 그 신체적 변화들을 지각함으로써 그는 공포라는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제임스는 만일 상식적인 의견에 따라 감정이 신체적 변화에 선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게 됨을 지적하며 자신의 감정 이론을 옹호한다. 만약 감정이 신체적 변화에 선행한다면, 감정은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각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각을 결여한 감정은 감정이라 불릴 수 없다. “만일 지각에 뒤따르는 신체적 상태가 없다면, 감정은 그 형식상 순전히 인지적이고, 창백하고, 생기가 없으며, 감정적인 온기를 결여하게 될 것”⁴⁾이기 때문이다.⁵⁾

정리를 하자면, 제임스는 (감정과 관련된) 외부 사건을 지각하면,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신체적 반응들에 대한 지각이 바로 감정이라 주장한다. 프린츠는 이러한 입장을 “신체적 느낌 이론(the

4) William James, “What is an emotion?”, In R. C. Solomon (ed.), *What Is An Emo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 67.

5) 무엇이 감정이라 불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각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순환 논증이라 할 수 있다. 인지주의자들의 경우 그와 같은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깊이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somatic feeling theory)”이라 지칭하며,⁶⁾ 이 이론의 기본적인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

2. 체현된 평가 개념

1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프린츠는 기본적으로는 신체적 느낌 이론을 지지한다. 이에 덧붙여 그는 ‘체현된 평가’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자신의 감정 이론을 구축하는데, 이를 “체현된 평가 이론(the embodied appraisal theory)”이라 부른다.⁷⁾ 그가 소개하는 체현된 평가 개념의 의미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감정은 그것이 핵심관련 주제(core relational theme)를 표상한다(represent)는 점에서 평가이며, 이러한 표상 즉 평가는 신체적 변화를 지각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체현된 것이다.⁸⁾ 이들의 의미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평가로서의 감정: 감정은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한다는 점에서 평가이다

먼저 ‘각각의 감정은 그것에 상응하는 핵심관련주제들을 표상한다는 점에서 평가이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이는 다음과 같은 두 문장으로 분석된다. 즉 ‘각각의 감정은 그것에 상응하는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한다. 따라서 감정은 평가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핵심관련 주제는 라자루스(R. S. Lazarus)에게서 빌려온 개념으로, 프린츠는 이를 ‘공통적 주제(common theme)’라고도 표현한다. 공통적인 주제란 하나의 특정 감정을 일으키는 다양한 상황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말한다. 친한 동료의 죽음, 연인과의 헤어짐, 시험에서의 낙방 등등의 많은 상황들은 이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슬픔(sadness)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프린츠는 슬픔을 일으키는 위와 같

6) Jesse Prinz, *Gut Reactions: A Perceptual Theory of Emo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4b), p. 5.

7) Prinz (2004b), p. 78.

8) Prinz (2004b), pp. 52-78.

은 다양한 상황들을 잘 살펴보면, 그것들이 모두 “가치있다고 여겨지는 어떤 것의 상실(loss)”과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⁹⁾ 즉 서로 다른 많은 상황들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슬픔을 일으키는 상황들은 모두 ‘상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슬픔이라는 감정의 공통적 주제인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공포(fear)라는 감정을 일으키는 다양한 사태들은 모두 위험함(dangerousness)이라는 공통적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케니(Kenny)의 용어들을 도입하면, 하나의 공통적 주제를 포함하는 일련의 특수한 대상들, 예를 들자면 앞서 언급한 친구의 죽음, 시험의 낙방, 연인과의 이별 등과 같이 슬픔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모두 ‘구체적 대상(particular object)’이라 부를 수 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대상들이 포함하고 있는 공통적 주제, 즉 상실은 ‘형식적 대상(formal object)’이라 부를 수 있다.¹⁰⁾ 핵심관련주제는 바로 이 공통적 주제, 형식적 대상을 가리킨다. 이때 핵심관련주제가 특정 외부 상황이 그 상황에 처해있는 개인의 이해관계나 관심사와 관련해 가지는 의미라는 점에서, 이는 유기체가 자신의 안녕(well-being)과 관련해 환경과 맺고 있는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다.¹¹⁾

프린츠에 따르면, 다양한 감정들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핵심관련주제들을 표상한다. 즉, 슬픔은 ‘상실’을, 공포는 ‘위험함’을 표상한다. 그는 ‘감정이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한다’는 주장을 드레츠키(F. Dretske)가 제안한 심적 표상에 대한 정의에 기대어 이끌어낸다. 드레츠키는 심적 표상을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태라 주장했다. 즉 어떤 것에 의해 신빙성 있게 야기되며(set off), 진화 혹은 학습을 통해 그것을

9) Prinz (2004b), p. 61.

10) 케니에 따르면,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들은, 그것이 실제이든 상상에 의한 것이든, 그 감정의 대상(object)이라 불릴 수 있는데, 이는 형식적 대상(formal object)과 구체적 대상(particular object)으로 나뉠 수 있다. Anthony Kenny, *Action, Emotion and Will*,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3).

11) Prinz (2004b), p. 62.

탐지하도록 설계되어야(set up) 한다. 프린츠는 감정이 핵심관련주제와 관련해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심적 상태임을 보여줌으로써 감정이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¹²⁾ 특정 감정 이를 테면 슬픔은 진화 혹은 학습을 통해 상실이라는 핵심관련주제를 탐지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며, 그에 따라 그 핵심관련주제에 의해 신빙성 있게 야기된다는 점에서,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한다고 말할 수 있다.¹³⁾

앞서의 논의를 통해 감정은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한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감정이 평가라는 것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린츠가 무엇을 평가로 정의내리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프린츠는 평가라는 개념을 “우리의 안녕과 관계있는 유기체-환경의 관계에 대한 표상”이라 정의내린다.¹⁴⁾ 평가에 대한 위의 정의와 앞서 논의한 핵심관련주제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감정이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한다’는 것이 곧 ‘감정이 평가임’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2) 체현된 평가: 감정은 신체적 변화들을 지각함으로써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한다는 점에서 체현된 평가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편으로 프린츠에게 감정은 특정 외부 사건에 대한 지각을 통해 야기된 신체적 변화들에 대한 지각이며, 다른 한편으로 감정은 그 사건이 속하는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하고 있는 상태이다. 공포라는 감정은 뱀을 지각했을 때 야기된 일련의 신체적 변화들에 대한 지각인 동시에, 뱀이라는 대상이 감정의 주체에게 의미하는 바인 ‘위험’이라는 정보를 표상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

12) Ibid. p. 52-67., 심적 표상에 대한 드레츠키의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Fred I. Dretsche, *Knowledge and the flow of information*, Cambridge: MIT Press, (1981); “Misrepresentation”, In R. Bogdan (Ed), *Belief: Form, content and function*, pp. 17-3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13) Prinz (2004b), pp. 52-67.

14) Ibid., p. 52.

다. 프린츠는 감정의 핵심관련주제 표상, 즉 평가가 바로 그에 상응하는 신체적 변화들을 지각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평가는 체현되었다고 말한다.¹⁵⁾ 이는 우리가 개의 털이나 멍멍 짖는 소리 혹은 꼬리 흔들기와 같은 개가 가진 외형적 특징들을 지각하고 개라는 것을 표상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감정이 신체적 변화들을 지각함으로써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프린츠는 이를 진화를 통해 외부 사태에 대한 지각과 그에 상응하는 특정 패턴의 신체적 변화 간에 연결고리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한다.¹⁶⁾ 즉 우리는 진화를 통해 뱀과 마주치거나 혹은 캄캄한 밤에 무언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이 위협에 속하는 다양한 상황을 지각하게 되면, 심장박동의 증가를 비롯한 여러 신체적 변화들을 나타내는 성질을 획득하게 되었다. 위험한 상황에서 야기된 심장박동의 증가가 근육의 운동에 필요한 혈액의 흐름을 증가시킴으로써 도망가거나 싸우는 등의 행동을 준비시키는 것처럼, 특정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유발되는 여러 신체적 변화들은 그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준비시키기는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¹⁷⁾ 프린츠에 따르면 유기체들은 이렇게 진화의 과정 속에서 특정 핵심관련주제에 포섭되는 여러 상황들 하에서 특정 패턴의 신체적 변화들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만일 감정이 그 특

15) Ibid., pp. 67-69. 프린츠에게 있어 ‘체현된(embodied)’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두 가지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먼저 핵심관련주제에 대한 표상 즉 평가가 판단을 통해서가 아닌 신체적 변화들을 지각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체현된’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본문에서는 ‘체현된’이라는 단어를 이 첫 번째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체현된’이라는 단어는 감정이 신체적 변화들에 대한 지각임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다. 프린츠는 2003년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감정은 제임스가 제안했듯이 신체적 변화들에 대한 내적 반응들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체현되었다.”

16) Prinz (2004b), pp. 67-69.

17) Ibid., pp. 67-69.

정 패턴의 신체적 변화들을 지각을 통해 기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에 대응하는 특정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하게 되는 것이다.¹⁸⁾ 정리를 하자면 감정은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하는데 이것이 신체적 변화를 지각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은 체현된 평가라 할 수 있다.

3. 프린츠의 체현된 평가(embodied appraisal) 대 인지주의자들의 판단(judgment)

2절에서 프린츠의 체현된 평가 개념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 의미는 인지주의자들이 말하는 판단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대표적인 인지주의자들 중 한 사람인 누스뱀(M. C. Nussbaum)은 감정이 일련의 평가적 판단들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그 판단은 단순히 이러저러한 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사실이 감정 주체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에 어떤 의미를 띠는지에 대한 판단이다.¹⁹⁾ 즉 “우리 자신의 안녕에 중요한 것에 관계된 판단들”²⁰⁾이다. 프린츠가 감정을 평가라 주장할 때, 이때의 평가가 핵심관련주제 즉 ‘우리의 안녕과 관계있는 유기체-환경의 관계에 대해 표상함’을 의미한다는 점을 앞서 살펴보온 바 있다. 이를 누스뱀이 말하는 판단과 비교할 경우, 그 둘은 내용상 일견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누스뱀이 말하는 판단은 명제적 판단이며, 그 자체가 감정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²¹⁾ 이와는 달리 프린츠가 말하는 평가는 감정적 상태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이라 여길 수 있다. 프린츠에게 있어 감정은 외부

18) Ibid., pp. 67-69.

19) Martha Nussbaum, “Emotions as Judgments of Value and Importance”, In R. C. Solomon (ed.), *Thinking about Feeling*,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p. 183-199.

20) Sunny Yang, “Emotions are not mere judgments: against Nussbaum’s judgmentalism”, *Philosophical Writing*, Vol. 33, (2006), p. 8.

21) Nussbaum (2004).

대상에 대한 지각으로 야기된 신체적 변화들에 대한 느낌이며, 이러한 과정에 명제적 판단은 직접적 원인으로도, 구성적 요소로도 참여하지 않는다.²²⁾ 그러나 감정은 특정 패턴의 신체적 변화를 지각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핵심관련주체를 표상한다는 점에서 체현된 평가인 것이다. 친구의 죽음이라는 상황에 처해 슬픔을 느끼는 P를 가정했을 때, 누스범과 프린츠는 각각 P의 슬픔이라는 동일한 감정의 발생을 다음과 같이 다르게 설명할 것이다. 누스범의 관점에서, P는 친한 친구의 죽음이라는 상황을 접했을 때,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죽었으며, 이는 P 자신에게 있어 커다란 상실이다’는 등의 판단들을 하게 되며, 이 판단들이 바로 P의 슬픔이라는 감정을 구성한다. 반면 프린츠에게 P의 슬픔은 P가 친구의 죽음이라는 상황을 지각했을 때 야기된 일련의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각이다. 이때 P는 진화적 과정을 통해 일련의 인과적 연쇄고리들, 즉 상실이라는 핵심관련주체와 연관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지각에서, 그에 상응하는 특정 패턴의 신체적 변화들 그에 이어 이 신체적 변화들에 대한 지각인 특정 감정에 이르는 인과관계를 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P는 그가 친구의 죽음이라는 상황을 목격해 야기된 신체적 변화들을 감정을 통해 느낌으로써 상실이라는 외부 상황에 대한 정보를 표상(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Ⅲ. 신체적 느낌과 인지는 감정을 구성하기 위해 어떻게 결합되는가?

앞 장에서 프린츠의 감정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이 장에서는 ‘신체적 느낌과 인지는 감정을 구성하기 위해 어떻게 결합되는가?’라는 문제가 프린츠의 감정이론 안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모색해 볼 것이다. 먼저 같

22) Prinz (2004b), p. 76.

은 문제에 대해 양선이가 제시한 설명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필자는 양선이가 핵심관련주체에 대한 표상을 감정의 발생과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여긴 데에는 반대한다. 그러나 핵심관련주체에 대한 표상이 인지주의자들이 말하는 명제적 판단은 아니지만 인지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위 문제에 답변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양선이는 2007년 논문에서 프린츠 이론 안에서 신체적 느낌과 인지가 감정이 구성되기 위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감정이 그것의 형식적 대상을 표상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 대상이 감정을 촉발하면 우리는 형식적 대상인 ‘핵심적 주제들’, 즉 공포에 대한 형식적 대상인 위험과, 슬픔에 대상인 상실, 그리고 화에 대한 형식적 대상인 모욕 등등을 떠올리게 된다. 예컨대, 내가 길을 지나가다 뱀(구체적 대상)을 보았을 때, 이것의 형식적 대상인 핵심주제 즉 ‘위험’이란 개념을 떠올리게 되고 이와 같은 형식적 대상에 대한 표상은 몸을 떨고 손에 땀을 흘리게 하는 신체적 변화를 야기한다. 이와 같은 신체적 변화는 곧 바로 공포라는 감정을 야기한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두 가지 점을 받아들인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 즉, 어떻게 신체적 느낌과 사고가 감정을 구성하도록 연결될 수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벼랑 끝에 서서 공포를 느낄 때, 높은 곳(구체적 대상)에 대한 지각은 ‘위험’이라는 형식적 대상을 떠올리게 하고 이와 같은 표상은 머리끝이 서고 등골이 오싹한 신체적 변화를 야기하며, 이와 같은 신체적 변화는 공포라는 감정을 야기한다.²³⁾

위의 설명에서 저자는 ‘뱀이나 벼랑의 끝과 같은 구체적 대상에 대한 지각 → 위험이라는 형식적 대상에 대한 표상 → 신체적 변화 → 공포 감정’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다시 말해 위의 설명에 따르면 인지적인 과정으로서의 형식적 대상, 즉 핵심관련주체에 대한 표상은 구체적인 외부 대상에 대한 지각을 통해서 일어나며, 그것이 신체적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신체적 변화에 대한 느낌인 감정과 관계

23) 양선이, 『윌리엄 제임스의 감정이론과 지향성의 문제』, 『철학연구』, 제79집, (2007), p. 121.

를 맺는다. 그러나 이는 프린츠의 체현된 평가 개념이 의미하는 바와 상충하는 듯 보인다. 먼저 프린츠가 제안한 ‘평가로서의 감정’의 의미를 고려할 때, 핵심관련주체에 대한 표상이 감정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없다. 앞서 우리는 프린츠가 평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바탕으로 감정이 곧 평가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프린츠에 따르면, 평가란 유기체가 자신의 안녕과 관련해 환경과 맺고 있는 관계 즉 핵심관련주체를 표상하는 것이며, 감정은 이 핵심관련주체를 표상하기 때문에 평가라 할 수 있다.²⁴⁾ 간단히 말해 프린츠에게 있어 감정적 상태는 곧 평가적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핵심관련주체에 대한 표상은 감정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것을 가능케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감정을 경험하는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라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첫 번째 문제와 연관되는 두 번째 문제는 양선이의 설명에는 평가가 체현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녀의 설명에는 핵심관련주체에 대한 표상이 구체적인 외부 대상에 대한 지각을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II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프린츠에게 있어 감정은 핵심관련주체를 표상하는데, 이러한 표상이 신체적 변화들을 지각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감정은 체현된 평가라 불릴 수 있었다.²⁵⁾ 정리를 하자면 프린츠에게 있어 핵심관련주체에 대한 표상은 감정의 발생과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으로 볼 수 없으며, 신체적 변화가 일어난 이후 이를 지각함으로써 감정이 발생했을 때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

24) 다음의 구절은 프린츠의 생각을 잘 드러내준다. “어떤 상태가 평가라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녕과 관련된 유기체-환경 관계를 표상해야만 한다. [...] 감정은 이러한 엄격한 의미에서 평가라는 자격을 가진다.” Prinz (2004b), p. 77.

25) 다음의 구절을 보라. “나는 또한 감정이 우리의 신체적 변화들을 모니터링한다고 주장해 왔다. 감정들은 신체에서의 변화들을 좇음으로써 유기체-환경 관계들에서의 변화를 표상한다. [...] 감정은 신체적 변화들을 기록함으로써 평가하는 상태이다. 나는 이것을 체현된 평가 이론이라 부른다.” Prinz (2004b), pp. 77-78.

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간단히 ‘외부 대상에 대한 지각 → 특정 패턴의 신체적 변화 →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각 = 감정 = 핵심관련주제에 대한 표상’으로 정리될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신체적 느낌과 인지가 감정을 구성하기 위해 어떻게 결합되는가?’의 문제를 프린츠를 통해 해결함에 있어 저자가 무엇을 인지적인 요소로 상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저자는 핵심관련주제에 대한 표상을 인지적인 과정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저자는 핵심관련주제에 대한 표상을 개념을 떠올리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어, 마치 그것이 개념을 통해 발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저자의 이후의 언급들을 함께 고려할 때 이는 오해인 듯 생각되는데, 저자는 같은 논문의 다른 곳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판단주의(judgmentalism)와 프린츠의 이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프린츠에 따르면, 판단주의자들은 평가를 평가적 판단으로 규정하는 반면 프린츠 자신은 평가를 우리의 안녕과 관련이 있는 유기체-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표상으로 본다. 신체적 지각이 유기체-환경 관계를 표상하는 방식은 ‘올바른 인과적 관계’를 통해서이지, ‘개념을 사용하거나 기술(description)을 통해서’가 아니다.²⁶⁾

이곳에서 저자가 핵심관련주제에 대한 표상이 인지주의자들의 명제적 판단과는 달리 개념을 사용하거나 기술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음의 인용문에서 저자가 핵심관련주제에 대한 표상을 개념을 떠올리는 과정이라 묘사한 것은 단순히 서술상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저자는 프린츠에게 있어 핵심관련주제에 대한 표상은 개념을 사용하거나 기술을 통해서 일어나는 명제적 판단과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이는 인지적인 과정이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인지’

26) 양선이 (2007), p. 122. 저자는 같은 논문의 다른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언급들을 하고 있다. pp. 119-122.

라는 말을 명제적 판단에만 한정하지 않고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입장에 동의한다. 만일 인지적인 것을 명제적 판단 등으로만 한정할 경우, 프린츠에게 있어 감정은 신체적인 반응들에 대한 느낌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인지적인 요소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답 이상을 이끌어낼 수가 없을 것이다. II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임스의 견해를 따르는 프린츠에게 있어 의식적인 인지적 판단들은 감정의 구성적 요소로서도, 직접적인 원인적 요소로서도 기능하지 않기 때문이다.²⁷⁾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프린츠 이론의 전체 모습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프린츠가 개념을 통한 명제적 판단들이 감정의 구성적 혹은 원인적 요소라는 데에는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감정적 상태를 평가적 상태로 규정한 이유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양선이가 취했던 방식대로 인지적인 과정이 명제적 판단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프린츠 이론을 좀 더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는 인지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상식에도 그다지 어긋나지 않는 듯 보인다.²⁸⁾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핵심관련주제에 대한 표상은 감정 발생과 동시에 일어나는

27) II장 I 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프린츠에게 있어 감정은 판단들이 아닌 신체적 변화에 대한 느낌으로 구성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핵심관련주제에 대한 외현적인, 체현되지 않은 판단들은 우리 감정의 내적 원인이 될 수 없다.” Prinz (2004b) p. 76.

28) 인지를 의식적이고, 언어적이고, 명제적인 판단에만 한정하지 않는 입장은 솔로몬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가 감정은 인지 혹은 판단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할 때, 그 인지 혹은 판단은 의식적, 언어적, 명제적인 것뿐 아니라 선언언어적이고, 의식적이지 않은 것 모두를 포괄한다. Robert C. Solomon, “Emotions, Thoughts, and Feelings: Emotions as Engagements with the World”, In R. C. Solomon (ed.), *Thinking about Feeling*,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p. 76-88.

과정이라 보아야 하며, 두 번째로 그것은 인지주의자들이 말하는 명제적 판단을 통한 것은 아니지만 인지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애초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자.

어떤 개인이 자신의 안녕과 관련해 자신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구별해 내는 것이 인지적 과정에 속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명제적 판단 등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지각함으로써 이루어진다면, 프린츠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후자라 할 수 있다. 프린츠에 따르면, 우리의 신체는 진화의 과정을 통해 특정 핵심관련주체에 포함되는 일련의 상황들에 처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특정 패턴의 신체적 변화들을 나타내도록 프로그램화되었다. 이때 그 인과 고리는 핵심관련주체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²⁹⁾ 따라서 만일 우리가 뱀 혹은 칼을 든 강도와 같이 위협이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특정 대상 혹은 사건을 지각하게 되면, 위협 상황에 의해 자동적으로 유발되는 심장박동수의 증가, 식은땀, 입이 마르는 증세 등등의 일련의 신체적 변화들이 발생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이러한 신체적 변화들을 지각했을 때,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공포라는 감정 상태는 그 하위의 인과 고리에 기반해 우리가 현재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정보를 표상하게 된다. 서로 다른 감정들을 비교해 볼 때, 이러한 감정의 인지적 기능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슬픔을 생각해 보자. 만일 친구의 죽음과 같이 그 개인에 있어 가치있는 것의 상실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사건을 지각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특정 패턴의 신체적 변화들이 야기될 것이며, 이에 대한 느낌인 슬픔이라는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때 슬픔이라는 감정은 공포라는 감정이 위험을 표상했던 것과는 달리 상실이라는 정보를 표상하게 된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감정들은 각기 서로 다른 패턴의 신체적 변화들에 대한 상이한 느낌들이다. 그러나 각각의 감정들은 그 상이한 느낌들을 통해 각기 그에 상응하는 핵심관련주체들을 표상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그 감정을 경험하는 개인이 현재 어

29) Prinz (2004b), pp. 67-69.

떠난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구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이성이 개념을 사용한 명제적 판단들을 통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구별하고 있다면, 감정은 이와 유사한 인지적인 기능을 신체적 변화들을 지각함으로써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인지적 과정을 명제적 판단의 형태로만 한정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이성이 하는 것과 유사한 인지적 작용, 즉 한 개인이 자신의 안녕과 관련해 현재 어떤 상태에 처해있는지를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프린츠의 이론 안에서 인지적인 것, 느낌 그리고 감정이 맺고 있는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감정은 외부 대상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야기된 특정 패턴의 신체적 변화들에 대한 느낌이지만, 바로 이를 통해 개인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구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지적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지적인 것을 명제적 판단에 한정시키지 않았을 때, ‘신체적 느낌과 인지는 감정을 구성하기 위해 어떻게 결합되는가?’라는 문제에 있어 프린츠에게서 가능한 답변을 모색해 보았다. 이제 남겨진 과제는 ‘감정 발생에 있어 명제적 판단으로서의 인지는 신체적 느낌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일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프린츠에게 제기된 한 가지 비판과 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린츠에게 있어 감정 발생의 일차적 원인은 외부 대상에 대한 지각이며, 감정은 이 외부 대상에 대한 지각으로 야기된 신체적 변화들에 대한 지각이다.³⁰⁾ 즉 명제적 판단들, 프린츠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탈체현된 판단들 (disembodied judgments)”은 감정에 있어 직접적인 원인으로서는도 구성적 요소로서도 기능하지 않는다.³¹⁾ 그러나 우리는 특정 외부 대상 혹은 사건들을 지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전히 생각만으로도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우리는 ‘나의 소중한 친

30) 주 27을 참조하라.

31) Prinz (2004b), pp. 74-77.

구였던 **가 이제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아(T)'라는 생각을 떠올리기만 해도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이 문제에 대한 프린츠의 해명은 그에게 있어 명제적인 판단이 감정을 구성하기 위해 느낌과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대한 답변이 된다. 프린츠는 기본적으로 지각이 감정을 일으키는 내적 원인이라고 보지만, 외부 사태를 지각하지 않고 순수한 판단만으로도 감정을 경험하는 상황을 자주 접한다는 사실 또한 인정한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연합 학습(associative learning)’을 끌어들이어 해결하고 있다.³²⁾ T라는 생각은 과거에 슬픔을 일으켰던 지각적 상태와 연합되도록 학습되었기 때문에, 생각 T를 했을 때 슬픔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외면적으로는 생각 T가 슬픔을 유발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과거에 연합되었던 지각적 상태를 경유해 슬픔을 유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친구가 차갑게 굳어버린 시체로 관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을 지각하게 되면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지각과 동시에 ‘나의 소중한 친구가 죽었어’, ‘이제 나를 가장 아껴주던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등등의 여러 생각들이 떠오를 것이다. 이 생각들은 바로 친구의 죽음이라는 지각 장면과 연합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특별한 지각 과정 없이 생각만을 통해 슬픔을 느끼는 것이 가능해진다. 프린츠는 외현적인 판단들이 감정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이는 지각 내용과의 연합을 그 선행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감정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에 “의존해(parasitic)” 있다고 말한다.³³⁾ 프린츠에게 있어 명제적 판단으로서의 인지는 “감정이 지각적 반응들에 의해 야기되는 경우에 의존해”³⁴⁾ 감정을 야기시킨다.

32) Ibid., pp. 74-77.

33) Ibid., pp. 74-77.

34) Ibid., pp. 76-77.

IV. 제임스 이론과의 관계—프린츠의 체현된 평가 개념을 중심으로

프린츠는 2004년 논문에 포함된 ‘체현된 평가’ 개념을 소개하는 장을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것이 제임스와 랭이 염두에 두었던 견해인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들의 공헌은 표상에 대한 철학적 사유에서 적절한 발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체현된 평가 이론은 그들의 중요한 통찰을 간직하고 있으며, 감정에 비판의 화살이 빗나가게 할 수 있는 의미론적 속성들을 부여했다.³⁵⁾

위 언급에서 우리는 프린츠가 자신의 감정 이론이 제임스의 것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체현된 평가’ 개념이 그의 이론에서 볼 수 없는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때 프린츠 자신이 이어받았다고 인정하는 제임스의 통찰이란 무엇인가? 이는 감정은 신체적 변화들에 대한 느낌이라는 것이며, 아마도 프린츠는 이 신체적 느낌으로서의 감정이 핵심관련주체를 표상한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감정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데에서 자신과 제임스의 이론과의 경계를 짓고 있는 듯 보인다. 그는 감정이 신체적 느낌임을 제임스의 이론에 기대어 설명하고 있는 반면, 그 신체적 느낌으로서의 감정이 평가임을 보이는 과정에서는 제임스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³⁶⁾ 그러나 그 둘의 이론은 프린츠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다고 여겨진다. 뒤에서 보이겠지만, 프린츠 자신이 감정이 체현된 평가임을 주장하기 위해 보여준 조건들 모두를 제임스 이론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이를 보여

35) Prinz (2004a), pp. 57–58.

36) Prinz (2004a); (2004b)

좁으로써 프린츠의 이론과 제임스 이론 간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프린츠의 감정이 체현된 평가임을 가능케 하는 요소 3가지를 지적한 뒤, 이들이 제임스 이론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

체현된 평가 이론의 핵심은 ‘개인이 처해있는 외부 환경이 그 개인의 안녕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즉 ‘핵심관련주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가 그 개인의 몸을 지각함으로써 이루어진다(EA)고 주장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는 프린츠에 따르면 핵심관련주체에 따라 외부 대상에 대한 지각과 그에 상응하는 신체적 변화 사이에 인과적 고리가 진화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프로그램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³⁷⁾ 특정 핵심관련주체에 포함되는 외부 대상에 대한 지각과 특정 패턴의 신체적 변화들 사이에 형성된 인과고리가 있기 때문에, 감정은 그 신체적 변화들에 대한 느낌이지만 바로 그 느낌의 상태가 곧 핵심관련주체에 관한 정보를 담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체현된 평가 이론의 핵심적 내용인 EA를 가능케 하는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진화 과정을 통해 외부 대상에 대한 지각(P)에서 신체적 변화(B)에 이르는 인과적 고리(P-B)들이 형성되었다.
2. 이때 그 인과 고리들은 핵심관련주체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3. 감정은 신체적 변화들에 대한 지각이다.

프린츠가 지적했듯이, 제임스가 감정 이론을 발표하던 시기에는 표상에 대한 철학적 연구가 발전하지 않았던 때였다. 그렇지만 위의 1, 2, 3번의 요소들이 제임스 이론에서 발견된다면, 그가 직접적으로 프린츠와 같이 EA를 정식화 시키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제임스의 이론 내에 프린츠의 체현된 평가 개념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번의 요소들에서 EA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임스 이론 안에서 1, 2, 3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필자는

37) Prinz (2004b), pp. 67-69.

여기서 그렇다고 주장할 것이다. 먼저 3번의 내용은 II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임스가 주장했던 바이며, 프린츠 자신도 이러한 생각을 제임스에게 빚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1, 2번의 내용은 어떠한가? 프린츠는 이들을 설명하면서 제임스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뒤에서 살펴볼 내용에 따르면 이는 정당하지 않다. 먼저 2번의 요소는 1번의 요소를 가정할 경우 자연적으로 따라나온다는 점을 지적하겠다. P-B의 인과고리가 진화를 통해 형성되었다면, 이는 그 인과고리가 유기체의 생존과 관련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한다. 그리고 이는 곧 P-B의 인과고리가 ‘유기체의 안녕과 관련된 유기체-환경 관계’인 핵심관련주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의 관건은 제임스의 감정 이론에서 요소 1번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지 여부가 된다.

다음과 같은 증거들은 ‘제임스가 프린츠와 마찬가지로 P-B의 인과관계가 진화적으로 우리 안에 프로그램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듯 보인다. 제임스는 감정 발생을 설명하는 대뇌 신경메커니즘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는 다음의 구절에서 잘 묘사되어 있다.

만약 후자가 옳다면 우리는 감각 중추나 운동 중추에서의 감정 과정이 전적으로 특수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감각 중추나 운동 중추에서 일어난다고 알려진 보통의 지각 과정과 유사한지를 질문해야만 한다. 이제 만약 내가 옹호해왔던 이론이 옳다면, 이 선택지 중 두 번째가 그 이론이 요구하는 전부이다. [...] 대상이 감각 기관에 주어져, 대뇌피질 부위에 영향을 주고, 지각된다. 혹은 내부적으로 흥분된 대뇌피질 부위는 같은 대상에 대한 관념을 생기게 한다. 반사 흥분(reflex current)은 섬광처럼 빠르게 이미 정해진 경로들을 통해 전해져 근육, 피부, 내장의 상태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변화들은 원래의 대상과 마찬가지로 대뇌피질의 많은 부분에서 지각되고 원래의 대상과 의식 속에서 결합되어, 그것을 단순히-이해된-대상에서 감정적으로-느껴진-대상으로 변형시킨다. 어떠한 새로운 원리도 끌어들이 필요 없으며, 모두들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반사 회로들(reflex circuits)과 국소 중추들 외에 다른 가정은 필요하지 않다.³⁸⁾

38) James (1890/1950), vol. 2, pp. 473-476.,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이다.

위 단락에서 우리는 제임스가 대뇌의 감각중추와 운동중추를 통해 감정의 발생과정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정과 관련된 외부 대상이 대뇌의 감각중추에 의해 지각되면, 이 정보는 운동중추에 전해져 신체적 변화들이 유도되는데, 감각중추가 그 신체적 변화들을 다시 지각함으로써 감정이 발생하게 된다.³⁹⁾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임스가 외부 대상의 지각에서 신체적 변화에 이르는 과정이 각각 두뇌의 어느 부위에서 처리되는지를 말하는 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두 과정의 관계를 반사 행동(reflex act)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⁴⁰⁾ 『심리학의 원리』 다른 곳에서 그는 반사 반응을 특정 감각 자극이 주어졌을 때 비자발적으로 특정 신체적 반응이 야기되는 현상이라 설명한다.⁴¹⁾ 눈에 무언가가 들어갔을 때 눈을 깜박이고 눈물을 흘리는 것, 돌에 걸려 넘어지려는 낚새를 감지했을 때 앞으로 손을 내미는 것 등이 반사 반응에 속한다.⁴²⁾ 제임스는 이를 대뇌피질이 특정 지각에 따라 “정해진 종류의 반응을 하는 선천적 경향”을 가지도록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한다.⁴³⁾ 따라서 제임스가 감정에 있어 특정 외부 대상의 지각과 특정 패턴의 신체적 변화 발생 사이의 관계를 반사 반응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은 그가 두뇌 차원에서 이 두 과정에 인과적 연결고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다음의 구절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뇌반구는 출생 당시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해진 종류의 반응을 하는 선천적 경향을 가짐이 틀림없다. 이것들은 우리가 감정 및 본능이라고 알고 있는 경향이며, [...] 본능과 감정은 모두 특정 종류의 지각 대상에 대한 반응이며, 뇌반구에 의존한다. 무엇보다

39) 르두는 제임스가 감정발생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한 대뇌 메커니즘을 모식도를 통해 잘 표현해주고 있다. 조셉 르두 (2006), 『느끼는 뇌』, 학지사, pp 112-113.

40) 인용한 단락에 밑줄로 강조해 놓은 부분을 참조하라.

41) James (1890/1950), vol. 1, pp. 12-14.

42) Ibid.

43) Ibid., p. 76.

도 이들은 반사적인 반응이다. 즉 자극 대상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며, 어떤 사전 생각이나 고려에 의해 동반되지 않고 또 억제될 수 없다.⁴⁴⁾

이렇게 제임스가 감정 발생에 있어 P-B의 인과관계를 프로그램 하고 있는 신경학적 회로를 상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해, 다음의 내용은 그가 그러한 신경회로가 진화를 통해 획득되어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제임스는 감정의 토대가 되는 신체적 변화들의 발생을 과거 특정 상황에서 우리 선조들에게 유용했던 반응들이 현재 약하게 반복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이다.⁴⁵⁾ 다윈(C. Darwin), 스펜서(H. Spencer), 분트(W. Wundt) 등은 놀람, 분노 혹은 공포 등의 감정에서 볼 수 있는 신체적 변화들을 과거 조상들이 처했던 상황에서 유용했던 반응들이 현재까지 전해진 결과로 설명하는데, 제임스는 이를 받아들여 감정의 신체적 반응들의 발생이 다음과 같은 원리에 따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감정에 있어 신체적 변화들은 “감정을 일으키는 대상을 강렬하게 다루는데 유용했던 반응들의 약한 형태의 재생”이다.⁴⁶⁾ 감정 표현에 사용되는 안면 운동은 예전에(그 운동이 강렬했을 때) 그 감정의 주체에게 쓸모 있었던 운동이 약해져 반복되는 것이며, 그 외 다른 신체 운동도 마찬가지로 다른 조건에서 생리적으로 필요한 결과였던 것이 약해져서 반복된 것들이다.⁴⁷⁾ 예를 들어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서 눈꺼풀을 치켜 올리는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그 위험한 상황을 주의 깊게 잘 살피기 위해 눈을 크게 뜨던 것이 현재까지 전해졌기 때문이다. 분노했을 때 콧구멍을 벌리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전투 중에 붙잡은 적의 몸통을 물어뜯어 입 속을 채우고 있을 때 호흡해야 했던 방식이 남은 흔적이다.⁴⁸⁾

지금까지 필자는 제임스의 감정 이론에서 요소1의 내용을 발견할

44) Ibid., p. 76.

45) James (1890/1950), vol. 2, pp. 477-485.

46) Ibid., p. 479.

47) Ibid., pp. 477-485.

48) Ibid., pp. 477-485.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으며, 위의 논의가 정당하다면 우리는 제임스의 감정 이론이 프린츠의 체현된 평가 개념을 가능케 하는 조건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프린츠는 체현된 평가 개념을 소개하면서 그것이 제임스의 감정 이론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지만, 우리는 두 이론이 단순히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서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임스는 요소 1, 2, 3 모두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제임스의 이론 안에서도 감정은 프린츠의 체현된 평가 이론이 말하는 것처럼 신체적 느낌인 동시에 개인이 자신의 안녕과 관련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지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프린츠의 체현된 평가 개념의 독창성을 훼손시키지는 않는 듯 보이며, 오히려 그 반대인 듯 생각된다. 제임스 이론 안에서도 프린츠의 체현된 평가 개념이 충분히 가능했지만, 실제로 제임스가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확인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⁴⁹⁾ 우리는 프린츠의 기여를 제임스가 그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점, 즉 감정이 체현된 평가라는 점을 밝혀내었으며, 이를 심적 표상이라는 개념적 도구를 바탕으로 정교화시켰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프린츠는 제임스의 견해에 따라 감정은 외부 대상의 지각으로 야기된 신체적 변화들에 대한 느낌이라 주장한다. 그는 제임스와 함께 감정 상태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생각들에 감정의 구성적 요소 혹은 직접적 원인으로서의 지위도 부여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인지를 명제적 판단에만 한정할 경우, 프린츠에게 있어 인지는 감정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며, 감정은 신체적 느낌에만 국한된다고 할 수 있을 것

49) James (1884); (1890/1950) 이는 제임스의 전기 이론에 해당되며, 그의 후기 이론까지 고려한 것은 아님을 밝힌다.

이다. 그러나 프린츠가 제안한 체현된 평가 개념은 문제를 그렇게 단순히 볼 수만은 없게 만든다. 체현된 평가 개념을 통해 분명해진 것 중의 하나는 감정은 신체적 변화를 지각함으로써 발생하지만, 바로 그 지각을 통해 감정은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한다는 것이다. 즉 감정적 상태는 단순히 느낌의 차원을 넘어서 감정의 당사자가 자신의 안녕과 관련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탐지하게 된다. 결국 감정에 있어 명제적 판단은 어떠한 역할도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체현된 평가로서의 감정 자체가 명제적 판단이 하는 것과 유사한 인지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명제적 판단으로서의 인지는 오직 외부 대상에 대한 지각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신체적 느낌으로서의 감정을 야기할 수 있다. 프린츠의 체현된 평가 개념은 신체적 느낌으로서의 감정에 느낌의 차원 이상의 인지적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프린츠가 제안한 체현된 평가 개념과 제임스의 이론과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정립하고자 했다. 제임스가 신체적 느낌으로서의 감정이 의미를 담지하고 있는 상태임을 주장했다는 사실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우리는 제임스의 이론 내에서 감정이 체현된 평가임을 보여주기 위해 프린츠가 제시한 조건들 모두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프린츠의 독창성을 제임스가 그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미처 간파하지 못한 점, 즉 감정이 체현된 평가라는 점을 밝혀내고 이를 심적 표상이라는 개념적 도구를 통해 정교화시켰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양선이 (2007), 『윌리엄 제임스의 감정이론과 지향성의 문제』, 『철학 연구』, 제79집, p. 121.
- 조셉 르두 (2006), 『느끼는 뇌』, 학지사.
- Dretsche, F. (1981), *Knowledge and the flow of information*.

Cambridge: MIT Press.

- Dretske, F. (1986), "Misrepresentation", In R. Bogdan (Ed), *Belief: Form, content and fun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James, W. (1884), "What is an emotion?", In R. Solomon (ed.), *What Is An Emo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James, W. (1890 / 195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Vol. 1 & 2.
- Kenny, A. (1963), *Action, Emotion and Will*,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Nussbaum, M. (2004), "Emotions as Judgments of Value and Importance", In R. Solomon (ed.), *Thinking about Feeling*, Oxford University Press.
- Prinz, J. (2003), "Emotion, Psychosemantics, and Embodied Appraisals", In A. Hatzimoysis (ed.), *Philosophy and the emo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rinz, J. (2004a), "Embodied Emotions", In R. Solomon (ed.), *Thinking about Feeling*, Oxford University Press.
- Prinz, J. (2004b), *Gut reactions: A Perceptual Theory of Emo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Solomon, R. C. (2004), "Emotions, Thoughts, and Feelings: Emotions as Engagements with the World", In R. Solomon (ed.), *Thinking about Feeling*, Oxford University Press.
- Yang, Sunny (2006), "Emotions are not mere judgments: against Nussbaum's judgmentalism", *Philosophical Writing*, Vol. 33.

ABSTRACT

How does the bodily feeling and cognition
combine to constitute emotions?

Shin, In-Ja

How does the bodily feeling and cognition combine to constitute emotions? In order to answer this question, in this paper, I first of all examine how that problem could be solved in Prinz's theory. On Prinz, cognition as a propositional judgment, does not serve neither as a constitutive element of emotions nor a direct cause. The reason is that emotions are feelings of bodily changes caused by perception of external objects. However, the concept of embodied appraisal suggested by Prinz, tells us that emotions as bodily feelings carry out the cognitive function that propositional judgments do. Cognition as a propositional judgment causes emotions as bodily feelings, on the condition that it is associated with perception of external objects. Secondly, this paper tries to define more clearly the relation between the embodied appraisal theory and James' theory. We can find in James' theory of emotion that it involves all the conditions which Prinz himself proposes in order to show that emotions are embodied appraisals. However, there is no evidence that James explicitly says of them as any meaningful states. Therefore we can reasonably claim the contribution of Prinz in that he shows that emotions are embodied appraisals, the idea is not perceived by James even though his theory

has all conditions for the thesis, and sophisticates his thought via the concept of mental representation.

Keywords: emotion, bodily feeling, cognition, Jesse Prinz, embodied appraisal, William James